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도시농업형 6차산업화 모델 '첫 선'

'전주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팜-페스티벌' 개최 밀순·콩나물 활용 케이크·비빔밥 만들기 등 체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도시농업형 6차산업화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은 12일 전주콩나물영농조합(금상동 소재) 체험장에서 장동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 어린이와 함께하는 팜-페스티벌(Fam-Festival)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오정화 전주시의원 등 전주시 관계자를 비롯해 전주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 영농조합, 학교 및 연구원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연구원은 올해 전주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 애농·전주콩나물영농조합과 함께 도시농업형 6차산업화 모델 구축 사업을 전개해 지역소재인 전주콩나물과 밀새싹을 활용한 연구제품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전주농생명소재 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 및 농업의 가치에 대한 강의 ▲지역소재인 전주콩나물과 밀새싹으로 만든 혼남·혼녀·콩까레, 밀순소시지, 콩나물 두유 등 제품소개 ▲밀순과 콩나물을 활

용한 케이크와 비빔밥 만들기 및 새싹 포트 만들기 재배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체험프로그램은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과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케이크만들기와 새싹 포트만들기를 패키지로 구성했는데 도시농업형 체험모델로 적합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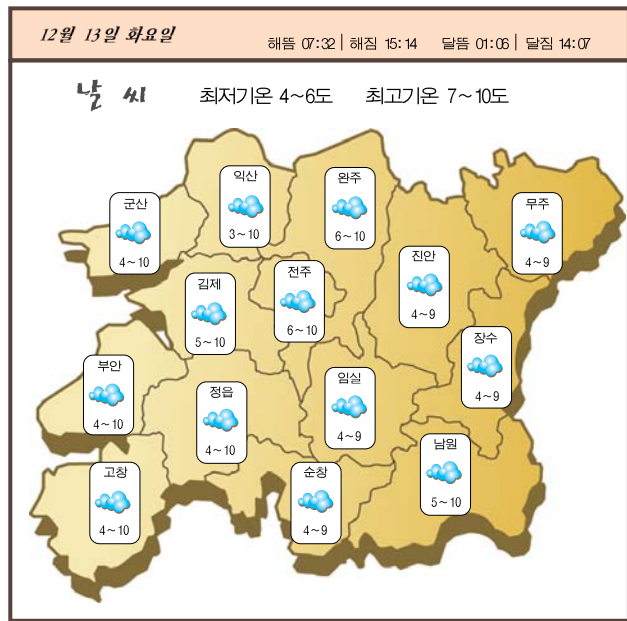
특히 전주시 어린이들에게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 제품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가치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

김성영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박사는 "이번 6차산업화의 소재가 된 밀새싹의 효능을 연구한 결과 밀순 추출물의 파골세포 분화 억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카레소스와 유기농 소시지를 개발하면서 6차 산업화를 위한 과학연계형 체험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이날 학생들에게 전주의 대표 농산물인 전주콩나물의 콩을 소재로 개발한 볶은콩 두유 및 두부 등을 소개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전주시 지역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6차산업화를 통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민과 기업,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업의 순환형 관광상품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형 제품개발 등을 통해 농업경제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형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발표회

2016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 사례 발표회가 13일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는 다양한 분야의 자유학기제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자리로 도내 중학교 자유학기제 업무 담당자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2시 개회식 후 단위학교의 활동 발표와 우수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

전주성심여중 열린 댄스동아리의 동아리 활동 발표, 익산중 영여 주 재선택활동 발표, 동국대부설 금산중 국어과 연계 연극활동 발표가 이어지며 전북형 자유학기 우수사례로는 성당중 유순옥 교사, 군산제일중 유경아 교사, 전주서중 홍순조 교사가 각각 우수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다.

성당중의 경우 올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먼저 학생들의 진로탐색

을 돕기 위해 △스트롱진로탐색 및 MMIC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진로탐색 △진로포트폴리오 작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진로체험활동 △집중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정기고사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대 1 맞춤형 직업진로탐색활동 등을 실시했다.

또한 주제선택 활동과 연극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으로 배움의 성취감을 함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군산제일중과 전주서중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으며 주제선택활동과 동아리 활동에도 적극 지원했다.

아울러 전문가 특강,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고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만족도를 높여줬다. /정해은기자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12일 전주르원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전통시장 상인워크숍에 송하진도지사, 하현수 전라북도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김승수전주시장, 정원탁 전북중소기업청장 및 도내전통시장 상인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전통시장 상인간 단결력 강화를 위한 화합 행사를 가졌다.

전주시, 통합방위 태세 강령회

전주시와 제35보병사단 등 민·관·군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나섰다.

전주시는 12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관계자와 제35보병사단 행정부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동장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통합방위태세 정기감사'에 대한 강령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령회는 제35보병사단에서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된 예비군 부대 정기감사에 대한 것으로, 통합방위 정기감사 유공자들에게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시민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항토방위태세를 확립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단

'군산조선소 준치' 5만명 서명부 전달

군산시의회에 전달, 이달 중순께 울산 본사 전달 예정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가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전북 도민들의 서명부를 군산시의회에 전달했다. <관련기사 8면>

군산조선소 준치 서명운동은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조선업 침체 여파로 내년 상반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일감이 고갈되면 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자

군산조선소를 지키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다.

지난 11월 3일 군산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명 운동은 전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 주관 아래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의 협조로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산됐다.

이날 의장단협의회는 전주시의회에서 군산조선소 준치 서명부 전달식을

개최하고 그동안 14개 시·군에서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 받은 총 5만 810명의 서명부를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에게 전달했다.

김명지 회장은 "군산조선소 준치에 대한 도민의 간절한 희망이 정부와 현대중공업 본사에 잘 전달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동안 군산조선소 준치 서명운동에 함께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군산조선소 준치 서명부는 12월 중순경 군산에서 현대중공업 본사(울산)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군산=문정곤기자

도교육청, 3월 1일자 임용예정 교육장 공모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 3월 1일자 임용 예정인 교육장을 공개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도내 초·중등 교장과 장학관, 교육연구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나 교원 4대 비위자는 기간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

월 22일까지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교육청 경영제안서, 자기소개서 등을 갖춰 업무관리시스템과 인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내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장 임용후보자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이달 말과 1월 초 현장 방문과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임용권자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정해은기자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